

<지난주 말씀>

▶저와 여러분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키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곳에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시스템이 되어지면 나에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 비밀을 가지면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망대를 세워야만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세우기만 하면 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됩니다. 이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과정으로, 끝으로 나타나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는 오직의 답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고는 다른 일은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행1:8의 방법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답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누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WIO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복음가진 파수꾼만이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파수꾼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말씀이 성취되도록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매일 하셔야 합니다. 매시 하셔야 합니다. 매사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3오늘로 하는 것입니다. 3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3집중으로 하는 것입니다. 3세팅으로 하는 것입니다. 3응답으로 하는 것입니다(문제-응답, 갈등-갱신, 위기-도전).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 다. 그 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답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분이 우리를 화목제물로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비밀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받았다는 말은 가졌다는 말입니다. 가졌다는 말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생각의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부정적이고 과거의 것으로 여전히 있으면 안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복음의 생각, 살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 의식은 내 몸을 살리는 호흡의 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의식입니다. 네 번째는 의미의 의식입니다. 내가 오늘 왜 여기에 가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나

는 왜 이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왜 이 교회에 오는가? 이걸 안 찾으면 멍때리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힘을 얻어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보좌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상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매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300%입니다. 질문하면 내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표에 답이 났을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구나, 그게 결정되면 안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300%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걸어도 될만큼 답이 났다, 그게 300%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걸 위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될 정도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현상이 보일 정도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만이 이 말씀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서에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랑, 그 사랑을 이루는 계명,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세전 복음, 성육신하신 복음, 십자가지신 복음, 부활하신 복음, 심판주로 오시는 복음, 재림주로 오시는 복음, 영원히 통치하시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편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론>

1.장로 요한의 편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요이2:1)

목사가 아니고 장로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장로의 개념은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여성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요한이 참으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 이로다(요이2:2)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겁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만이 응답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요이2:3)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떨어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왜 내 것이 되었습니까? 사랑으로 전달되어, 내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2.너희 자녀들 꿈에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요이2:4)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응답을 받는 것을 보니 기쁘다는 것입니다. 부녀와 자녀들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보니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요이2:5)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육신적 사랑이 아닌 영혼 사랑입니다. 진리를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복음 전하라,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게 사랑입니다. 지난 날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오해했어요. 초창기 제 메시지를 보면 다 종교적인 메시지에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복음 전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진리를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요이2:6)

말씀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요이2:7)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을 따라 살아

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받았습니까? 내가 뭘 가졌습니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이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다, 말하잖아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고,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요이2:8)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라, 요즘 말로 망대를 세워라, 여정을 가라, 이정표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정표를 남기냐? 후대를 위해서. 자녀에게 아빠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갔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1부때 말한 렌넨트 7명, 성경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취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온전한 상을 받는, 기념비적 인생을 살길 축원합니다.

▶요한이 있던 시대에는 교회에 이단이 득실거렸습니다. 예수가 뭘 하나님이나? 뭘 저런 사람 말을 듣느냐? 원래 우리가 가진 모세오경이 있지 않냐, 율법이 있지 않냐, 그게 진짜야. 모세오경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단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3.마지막 문안

▶마지막으로 요한이 문안하고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들을 모시느니라(요이2:9)

내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신 자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사역으로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맞다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요이2:10-11)

여러분 왜 이단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지,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인사하고 악수만 할 뿐인데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떠난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도의 개념과 좀 다른 것입니다. 아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고 이단의 영에 잡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빠져서 아예 거기를 섬기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해 신천지 같은 사람, 여호와와 증인 같은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고 들이지 말라. 안 맞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안 맞을까요? 우리와 배경, 신분, 나라가 안 맞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이2:12)

사도 요한이 다른 교회에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한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떤 중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취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가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역할에 동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인간입니다. 타락하기 전의 인간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짐승보다 못해져서 짐승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회복하고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가진 것 두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처음부터 가졌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237나라 5000종족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진짜 꿈을 꾸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